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27면	[동정] 권혁열 도의장(강릉)	1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권혁열(왼쪽) 도의회 의장·심오섭(강릉) 도의원	1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강원 해양관광 로드맵 강구하라”	2
강원도민일보	03면	"도내 의대 학생부 전형으로 지역학생 선발 늘려야"	3
노컷뉴스	온라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알펜시아 입찰 담합, 강원도-도의회 ...	4
강원도민일보	20면	도의회 농림수산물 임업후계자협 강원지회 간담회	5
江原日報	27면	도의회 농수위-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강원지회 간담회	5
누리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물위원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6
news 1	온라인	강원도의회 플로깅 동호회 ‘PIGS’ 발대식...본격 활동 돌입	7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플로깅 동호회 ‘PIGS’ ...	8
전국 지방자치 뉴스	온라인	지광천 강원도의원, 제32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토지 규...	9
뉴스쉐어	온라인	지광천 강원도의원, 제32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토지 규...	10
쿠키뉴스	온라인	문관현 강원도의원,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근...	11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문관현 강원도의원,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근...	12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심오섭 강원도의원, 도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근거 마련	13
신아일보	온라인	심오섭 의원 발의, '강원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14
KBS 춘천	온라인	김왕규 양구 도의원 당선자, 국민의힘 입당	15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심규언(왼쪽) 동해시장·유순옥(비례) 도의원	16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최상기(왼쪽) 인제군수·엄윤순(인제) 도의원	16
강원도민일보	01면	기간제로 채우는 교단... 정교사 채용감소 심각	17
강원도민일보	02면	전국서 '특별법' 우후죽순 ... 강특별법 3차 개정 안갯속	18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 농가인구 14만명대 붕괴, 절반이 고령층	18
강원도민일보	04면	제자 잃고 재판장까지 ... 교사 불안에 체험학습 취소 증가	19
江原日報	02면	도내 대학 지원 총괄 '강원라이즈센터' 가동	19
江原日報	05면	공공기관 '점자 오류' 1년째 방치	20
강원도민일보	13면	강릉시 실시간 신호정보 시범도시 선정	21
江原日報	16면	홍천양수발전소 건설 주민 의견 반영	21

강원도민일보	07면	지갑 달은 방문객 ... 착한 가격 '관광1번지' 사수 시급	22
江原日報	26면	“공 잘 찬다고 월클 아냐 인품 반드시 동반해야”	23
강원도민일보	14면	삼척시청 육상팀 '마라톤 도시' 명성 입증	24
江原日報	23면	강원FC, 인천 방패 뚫고 홈 2연승 도전	2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청년 귀농·귀촌 입체적 지원을	2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도양성평등기금 결정액 인색해서야	26
江原日報	25면	[사설] 환자 뒷전인 醫-政 간 대치 국면, 이제는 멈춰야	27
江原日報	25면	[사설] 영월~삼척고속도·제2경춘국도, 내년 국비 반영을	28

江原日報

2024년 04월 19일 (금)

인물동정 27면

◇권혁열도의장(강릉)은 20



일 오전 10시30
분 강릉 종합운
동장에서 열리
는 강릉시 새마
을지도자 한마

음체육대회에서 축하.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9일 (금)

인물동정 13면

의장·심오섭(강릉)
도의회는 20일 오전 9
시30분강릉 교동택지
술을공연장에서 열리
는강릉자전거대행진
에참석한다.



권혁열(왼쪽) 도의회

2024년 04월 19일 (금)

江原日報

종합 03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사진은 김시성(국민의힘·속초·사진 가운데)의원이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모습.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도의회 “강원 해양관광 로드맵 강구하라”

사회문화위 김시성 도의원 지적…道 “관련 전략 수립중”

강원지역 해양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목소리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갖고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시성(국민의힘·속초) 도의원은 “해양 관광은 강원 관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해양관광센터(가칭) 부서를 새로 만든다면 해양관광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 해안이 좋다’, ‘물 깨끗하다’ 정도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건 어불성설이고 관광객은 줄고 있다”며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준태 도 관광국장은 “공감한다. 지난해 7월 해양관광레저타운 신설되면서 저도 주장했던 이야기”라며 “현재 전략이 거의 다 수립됐고 준비하고 있다. 더 디테일하게 다듬고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심오섭(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더 배치돼야 한다”며 “기획자를 육성해 국비를 제대로 따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문관현(국민의힘·태백)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가 수정 가결됐다. 선수와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의 내용을 담았다.

심오섭 의원의 ‘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도 통과됐다.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하고, 기업 메세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윤길로(무소속·영월) 도의원의 ‘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내륙어촌 발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가업승계 내수면 어업인을 우대하는 내용이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9일 (금)

종합 03면



1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의 도교육청 9개 직속기관 주요업무 추진보고 자리에서 조성운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영

“도내 의대 학생부 전형으로 지역학생 선발 늘려야”

도의회 교육위 전의

2025학년도 강원도내 의과대학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관련, 수능 최저학력이 아닌 학생부 전형 선발을 통한 강원 출신 인재 진학 확대 주문이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18일 제327회 2차 임시회를 열어 강원도교육청 직속 9개 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영욱(홍천) 의원은 고3학생 대상 ‘의과대학 진학캠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학생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대신 학생부 전형으로 의과대 학생을 선발해야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진학할 수 있다. 도내 의대 보유 대학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진(비례) 의원은 진로교육원에 특수교육 학생 진로 맞춤형 체험을 요청하면서 “일반 학생은 교육청 직속기

관에서 펼치는 여러 프로그램에서 중복 교육을 누리지만, 특수교육 학생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희철(춘천) 의원은 내년 시행되는 유보(영유아교육보육통합)통합과 관련, 교육연구원에 “심도있는 정책 연구로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사회문화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내륙어촌발전 및 지원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됐다.

김현경 hyunkyoung@kado.net

노컷뉴스

2024년 04월 18일 (목)

사회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알펜시아 입찰 담합, 강원도-도의회 진상규명 나서야"



공정거래위원회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KH그룹 소속 6개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실을 확인해 관련 업체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의혹을 제기해 온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구소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관련 도 행정기관과 강원개발공사에서 입찰 기간 어떠한 불법과 비위행위를 자행했는지 날날이 도민들에게 소상히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의 대표 기관인 강원도의회 역시 강원도민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와 자존심에 피해를 주었던 이번 사건에 대해 행정부와 협조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법적 조치 이행 및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17일 공정위는 KH그룹 소속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00만 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애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9일 (금)

인물 20면



도의회 농림수산위 임업후계자협 강원지회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는 18일 한국임업후계자협회강원지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임업분야지원확대 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강원도의회

江原日報

2024년 04월 19일 (금)

인물 27면



도의회 농수위-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강원지회 간담회 강원특별
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김용복)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
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강원지회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년 04월 18일 (목)

전국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강원지회 간담회 실시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은 4월 18일 제327회 임시회 회기 중 한국임업후계자협회강원지회와의 간담회를 도의회에서 개최, “임업분야 지원확대 및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건의”을 청취했다.

시사일보, 뉴스쑈 등 32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4월 18일 (목)

종합

강원도의회 플로깅 동호회 'PIGS' 발대식... 본격 활동 돌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플로깅 동호회 'PIGS' 발대식.(도의회 제공)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플로깅동호회 'PIGS(픽스)'가 18일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돌입했다.

PIGS는 이날 도의회에서 발대식을 열고 모임 안내, 회원 소개,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회원은 김정수 의원(철원), 문관현 의원(태백), 박관희 의원(춘천)을 포함한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지천과 봉의산 등 도의회 인근부터 다양한 도내 플로깅 코스를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자는 의미를 담아 'Plogging in Gangwon State(플로깅 인 강원스테이트)'의 약자인 'PIGS'가 동호회의 이름으로 탄생했다.

PIGS 관계자는 "단순 친목을 넘어 환경 보호를 매개로 도의회-도민 소통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04월 18일 (목)

위클리오늘

지역

[위클리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플로깅 동
호회 'PIGS' 발대식 개최

박종성 기자



[강원 위클리오늘=박종성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플로깅 동호회 'PIGS'의 발대식이 4월 18일 개최됐다.

플로깅(plogging)이란 '줍다'의 의미인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을 말한다.

플로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자는 의미를 담아 'Plogging in Gangwon State'의 약자인 'PIGS'가 동호회의 이름으로 탄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철원), 문관현 의원(태백), 박관희 의원(춘천)을 포함한 총 19명의 회원으로 출발하는 PIGS는 이날 발대식을 열고, 모임 안내와 회원 소개,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공지천과 봉의산 등 도의회 인근 주요 명소부터 시작해 다양한 도내 플로깅 코스를 찾아다니는 월 2회의 정기 모임은 물론 별도의 상시 모임, 회원 교류회 등도 예고됐다.

PIGS 측은 'PIGS는 일반적인 직장 내 동호회와는 다르게 도의회 직원뿐만 아니라 도민의 뜻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도의원들도 회원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라 설명하며, '단순 친목을 넘어 환경 보호를 매개로 도의회-도민 소통에 적극 기여하는 것이 목표'임을 밝혔다.

박종성 기자 wknews005@kakao.com

누리일보, 메트로타임즈 등 35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4월 18일 (목)

전국 지방자치 뉴스

강원

지광천 강원도의원, 제327회 임시회 5분자유 발언 “토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특례안 마련해야”



지광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원은 4월 16일, 제 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자치도 도시·군관리계획의 문제점’ 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인한 토지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특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광천 의원은 “우리 강원자치도는 최대 6종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2003년 초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지역의 세분화”라고 밝히면서 “수도권의 난개발에 따른 폐해로 인해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지방 발전을 저해시키는 법률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광천 의원은 “농지로서의 가치가 큰 지역과 가치가 불분명한 지역이 동일한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이 도내에 무수히 많다”라고 하며 “도내 영업이 잘되고 있는 농어촌 민박업체들이 많이 있어 해당 업체의 주변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한다면 많은 추가 수익이 예상되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으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권자를 정하는 면적기준을 최소한 지금의 2배로 상향하고 2차 강원특별법의 농지 관련 특례와 같이 한시적으로 특별도시·군관리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특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재호 기자 it8815@naver.com

2024년 04월 18일 (목)

뉴스웨어

종합

지광천 강원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5분자유 발언 “토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특례안 마련해야”

최남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뉴스웨어=최남우 기자] 지광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6일, 제 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자치도 도시·군관리계획의 문제점’ 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인한 토지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특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광천 의원은 “우리 강원자치도는 최대 6종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2003년 초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지역의 세분화”라고 밝히면서 “수도권의 난개발에 따른 폐해로 인해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지방 발전을 저해시키는 법률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광천 의원은 “농지로서의 가치가 큰 지역과 가치가 불분명한 지역이 동일한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이 도내에 무수히 많다”라고 하며 “도내 영업이 잘되고 있는 농어촌 민박업체들이 많이 있어 해당 업체의 주변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한다면 많은 추가 수익이 예상되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으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권자를 정하는 면적기준을 최소한 지금의 2배로 상향하고 2차 강원특별법의 농지 관련 특례와 같이 한시적으로 특별도시·군관리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특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명성일보, 시사일보등 25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4월 18일 (목)

쿠키뉴스

지역

문관현 강원도의원,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근거 마련

김태식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문관현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의원(태백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 실태조사 실시 ▷ 공공체육시설 이용 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관현 의원은 “도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미비된 곳이 많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춘천=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8일 (목)

정치

문관현 강원도의원,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근거 마련

이설화



▲ 문관현 도의원

문관현(태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 실태조사 실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이 담겼다.

문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성을 극대화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오는 25일 제327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lofi@kado.net

엔사이드, 신아일보 등 28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8일 (목)

정치

심오섭 강원도의원, 도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근거 마련



▲ 심오섭 강원도의원

심오섭(강릉)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8일 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하고, 기업 메세나(기업의 문화 후원)의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문화예술후원 동력을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문화예술후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기업의 문화예술후원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사회 공헌을 바라는 기업 간의 상생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례는 오는 25일 제327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강원

신아일보

2024년 04월 18일 (목)

지역

심오섭 의원 발의, '강원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정호 기자

안정적인 도내 문화예술후원 동력 확보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하고, 기업 메세나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문화예술후원 동력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업 메세나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도내 문화예술 분야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후원 동력 및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지난 2014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서울·경기 수도권은 물론 제주와 경북, 전북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주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기업의 공익적·사회적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례를 통해 문화예술후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 우리 도내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기업의 문화예술후원이 활성화되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사회 공헌을 바라는 기업 간의 상생의 틀이 마련되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변했다.

한편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

뉴스쑈, 명성일보 등 28개 언론사 보도

KBS 춘천

2024년 04월 18일 (목)

강원

김왕규 양구 도의원 당선자, 국민의힘 입당



강원도의원 양구군선거구에서 당선된 무소속 김왕규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당에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엔 공천을 안하겠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원칙에 따라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는 국민의힘 42명,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게 됐습니다.

고순정 flyhigh@kb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9일 (금)

인물동정 14면
참석한다.



심규언(왼쪽) 동해시
장·유순옥(비례) 도의
원은 19일 오후 6시 동
해현진관광호텔에서
열리는바르게살기운
동 회장 이취임식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9일 (금)

인물동정 15면



최상기(왼쪽) 인제군
수·엄윤순(인제) 도의
원은 19일 오전 11시
인제체육관에서 열리
는장애인의날 기념행
사에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9일 (금)

종합 01면

기간제로 채우는 교단... 정교사 채용감소 심각

을 1163명, 최근 5년내 최대

교육현장 정규채용 확대 목소리

도교육청 "현실적 어려움 있다"

매년 신규 임용되는 강원교사의 숫자는 줄어드는 반면 기간제 교사 숫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강원 교육계 내부에서는 "일선 현장이 기간제 교사로 버틴다"는 자조섞인 비판까지 나온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강원도내 유·초·중·고 기간제교원(공립)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2020년 894명이던 기간제교원은 2021년 1039명을 기록한 후 2022년에는 1100명으로 재차 늘었다.

지난해에는 1076명으로 집계되며 소폭 하락했으나 올해는 1163명으로 급증했다. 2020년과 비교해서는 5년 사이 269명 (30%)이 늘었다. 해당 기간 유치원은 152명에서 94명으로 감소한 반면, 초등과 중등은 매년 늘어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5년 사이 초등은 133명에서 232명으로, 중등은 609명에서 837명으로 228명 증가했다.

교원단체는 신규 교사 임용 감소가 기간제교사 증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강원지역의 경우 2019학년도 272명이던 초등 임용 규모는 지난해 (2023학년도) 93명까지 줄었고, 올해는 75명 (일반 69명, 장애 6명)만을 모집해 2003년 이후 21년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년 300명대 규모로 선발하던 중등임용 역시 올해 222명 (공립)만을 임용해 2017학년도에 이어 최근 11년간 두번째로 적었다.

조영국전교조강원지부정책실장은 "당장 필요한 교사들이 있다 보니 결국 기간제를 채용해 급한 인원을 때우고 있다"고 했다. 배성제강원교총회장은

최근 강원도내 공립 유·초·중·고 기간제교원 수 (매년 4월 1일 기준, 단위/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유	152	148	150	138	94
초	133	244	203	149	232
중	305	351	374	367	408
고	304	296	373	422	429
합계	894	1039	1100	1076	1163

"교육현장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간제가 아닌 정규교사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학교 현장의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원주 A고교 교장은 "예전에는 기간제교사가 이방인 성격이 강했지

만, 지금은 워낙 많아져 별도 직업군이 된 느낌이다"고 했다. 기간제 교사로서 무 중인 B교사는 "기간제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정규교사가 되겠다는 희망은 버리지 않는다"며 "정규교사 채용 기회의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신규 교사 임용감소만으로 기간제가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육아·질병휴직 등 다양한 요인으로 한 달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기간제를 쓰게 된다"면서 "도교육청 역시 모든 빈자리를 정규교사로 채워주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민엽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9일 (금)

종합 02면

전국서 '특별법' 우후죽순...강특별법 3차 개정 안갯속

부산 등 전국서 우선순위 경쟁
여당 총선패배 동력 상실 우려
도, 의원 입법 가닥 6월 발의

전국 각 광역자치체가 '특별법' 추진에 앞다퉈 나서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이 22대 총선에 참패해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한 것도 강원특별법 개정에 악조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주도로 각 정부 부처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70여개 특례를 협의하고 있다.

강원도는 22대 국회에 개원하는 5월 30일 이후, 도정차원과 협의해 6월 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1호법

안 추진이다.

도와 도정차원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초기 입법을 위해 의견을 모았지만, 개정 작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부산과 전북, 용인시 등 전국에서 '지역특별법'의 제·개정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우선순위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에 이어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 시민생토론회에서 "지방시대, 가장 중요한 축이 부산"이라며 부산특별법(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을 확인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를 위한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과 관련, 4개월만에 또 다시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이 이뤄진다면, 네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 가능성도 유력하다.

또, 경기도는 경기 북부를 떼어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공언한 상황이다.

각 지역 특별법·특별자치도 출범의 핵심은 자치 권한 확대다. 이는 정부 부처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어서 정부는 특별법 제·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핵심 특례에 부정적"이라며 "현행 강원특별법 시행(6월)에 앞서 3차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관련, 도는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특별법 제정과 2차 개정 당시 처했던 의원 입법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의원 입법의 경우, 도내 국회의원 간 물밑 주도권 경쟁이 예상, 대표발의 의원이 누가 될지 주목된다. 도는 이번달부터 도내 국회의원들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실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9일 (금)

종합 02면

강원 농가인구 14만명대 붕괴, 절반이 고령층

전국적 감소세... 100만 가구 밀돌아
도내 60세 이상 67.7%, 30대 3.3%

강원지역 농가인구 14만명대가 붕괴된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5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12월 1일 기준) 강원지역 농가는 6만6000가구로 전년 대비 1만2000가구(-1.9%) 감소했다. 특히 강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이 감소세를 보이며 농업조사가 시작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농가수(99만9000가구)가 100만 가구 밑으로 추락했다.

강원지역 농가인구(13만9699명)는 역대 처음으로 14만명대가 붕괴됐

으며 2013년(17만7227명)과 비교해 10년 만에 3만7528명(21.2%)이나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7만1868명으로 같은 기간 1만567명(17.2%) 증가했다.

특히 도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51.4%,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를 기록했다. 농가인구 중 60대는 4만6642명, 70세 이상은 4만7865명으로 각각 33.4%, 34.3%를 차지했다.

반면 30대 농가인구는 4629명(3.3%)에 불과했다.

도내 농가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215가구)은 전체(6만5517가구)의 0.3%에 불과하고, 40대(2138가구)도 3.3%에 그친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최근 7년간 강원지역 농가인구 및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
출처/통계청, 단위/명

연도	농가인구 (65세 이상)	65세 이상 비율
2011년	18만3273 (6만1301)	33.4%
2013년	17만7227 (6만5272)	36.8%
2015년	17만5567 (6만2313)	35.5%
2017년	16만871 (6만4520)	40.1%
2019년	14만8545 (6만6794)	45.0%
2021년	15만5 (6만6648)	44.4%
2023년	13만9699 (7만1868)	51.4%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9일 (금)

종합 04면

제자 잃고 재판장까지...교사 불안에 체험학습 취소 증가

초등생 사망사고 인솔 교사 기소
안전사고 위험 상존 추진 기피
교원 보호제도 마련 촉구 목소리

속보=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교통 사고로 초등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솔 교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본지 4월 18일자 4면 등)을 받게 되자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강원도내 초교가 늘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 A초는 올해 1학기 예정됐던 1~5학년 체험학습을 잠정 취소했다. A초교가 체험학습을 취소한 원인은 앞서 강원도내 한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한 명이 사망한 사건 때문이다. 당시 인솔 교사들은 현재 과실치사로 검찰 기소돼 오는 19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초는 학부모들에게 전달한 안내문에서 "교사에 대한 보호대책 없이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것이 염려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속초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안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희정(사진가운데)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민영

다수의견이 제기됐다"면서 "학생 복지를 위해 체험학습을 추진했으나 교원의 불안감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체험학습 잠정 취소를 결정했다. 학부모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원주B초교 역시 현장학습 축소를 고

민 중이다. B초 교장은 "교실과 달리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체험학습 특성상 변수가 많아 교사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재판까지 가는 일이 생기니 선생님들 사이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교사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지면 학교 현장이 체험학습 진행에 부담을 보이자 강원도내 교원단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서 발언한 이희정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은 "검찰의 '과실치사' 송치로 인한 재판은 전국의 교사들에게 트라우마를 심는 일"이라며 "학생과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법과 제도를 통해 마련해달라"고 했다.

같은 날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배성제)는 춘천지방법원을 방문해 재판을 앞둔 교사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서 강원교총은 "전국 50만 교원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학생의 전인 성장을 위해 현장 체험학습에 나섰다"가 재판에서 게릴라 동료 교사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교사들은 누구보다 학생 안전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고, 주의의무를 성실히 했음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정민영

江原日報

2024년 04월 19일 (금)

종합 02면

도내 대학 지원 총괄 '강원라이즈센터' 가동

교육부, 강원인평원 전담 지정
5월 초 사무실 이전 운영 시작
연간 1천억원 운용 권한 막강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목표

강원지역 대학 지원,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강원라이즈(RISE)센터'가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5월 본격 가동한다.

특히 강원도 소재 대학생의 지역 내 취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소멸 대응

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간 가교인 라이즈센터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강원라이즈센터 전담기관으로 지정 승인했다.

강원라이즈센터는 강원지역 16개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의 지원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과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운용한다.

강원인평원은 라이즈센터 설치에 따라 5월 초 사무실을 확대 이전한다. 이미 센터 운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팀장급 등 2명이 파견된 상태로 올 7월 도청 정기인사에서는 과장

급을 비롯해 실무진이 대거 총원될 전망이다. 올 하반기 사업 기획 및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대학별 지원에 나선다.

기존에는 정부가 대학에 직접 재정 지원을 했다면 라이즈센터 출범 후에는 대부분의 대학 국비 지원이 강원자치도와 라이즈센터를 거쳐게 된다. 전국의 라이즈센터가 1년 간 운용하게 될 예산 규모는 2조원 이상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라이즈센터의 4대 목표는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직업평생교육의 혁신,

지역현안 해결 등으로 요약된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학생의 지역 내 취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강원도의 경우 졸업생이 지역에 취업해 정착하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역인재의 입학 및 취업 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강원지역 대졸자 중 수도권 취업자는 63.6%인 반면 지역 내 취업자는 24.1%에 그쳤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매트 덮이고



축지판 미설치



문 충돌 위험

공공기관 ‘점자 오류’ 1년째 방치

지난해 시각장애인들이 지적한 공공기관의 점자 오류가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시각장애인들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 점자 보완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시급하다.

강원일보와 춘천사회혁신센터는 지난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골목 실험실)’의 일환으로 ‘점자 실험’을 실시했다. 춘천사회혁신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9개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 총 88개의 점자 오류 데이터를 수집해 춘천시에 전달했다. 그러나 1년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점자 오류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18일

지난해 본보 ‘리빙랩’ 실험 9곳 88개 춘천시에 전달
상당수 개선 안 돼 그대로
시 “개선할 곳 검토 마쳐
시급한 곳부터 우선 조치”

A 사회복지기관.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문 앞문과 뒷문 사이의 바닥 공간에 점자블록이 없어 자칫 자동문을 통과하다 충돌할 위험이 여전했다.

지난해 점검 당시 시각장애인 진성만씨가 ‘음성 안내가 없어 동선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안내촉지도 또한 구석에 방치돼 있었다.

B 박물관은 입구로 이어진 점자블록을 매트로 덮어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C 복지

관의 1층 계단에 설치된 핸드레일에도 점자가 없어 방향을 잃을 위험이 컸다.

점자 실험을 담당한 최정인 춘천사회혁신센터 선임매니저는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곳곳에 만연한 점자 오류 개선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장애인편의 증진기술센터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초 점자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 현황을 종합한 상태”라며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점자 시설 보완이 가장 시급한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준경기자 lea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9일 (금)

지역 13면

강릉시 실시간 신호정보 시범도시 선정

경찰청 국비 4억2200만원 지원
신호제어기 고도화 10월 가동
ITS시스템 구축 시너지 극대화

강릉시가 경찰청에서 실시한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선진화된 교통체계 구현에 한발 더앞서 나가게 됐다.

시는최근경찰청이공모한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에 응모, 선정돼 국비 4억22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26년 ITS세계총회를 통한 서비스의 국내외 홍보, 미래형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 관광형 자율주행차 운영 등에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의 도시교통정보를 수집,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찰청에서 실시한 공모에 시가 첫 선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실시간 신호정보제공 시범도시사업은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수집된 실시간 신호정보를 미래 모빌

리티 및 내비게이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시 전역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신호제어기 고도화를 완료해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구축되면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신호등 색깔이 몇 초 뒤에 바뀌는지를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신호를 받기 위해 과속하거나 차량 꼬리물기를 하는 등의 위험 운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2026년 ITS(지능형교통

체계) 세계총회를 개최하는 시는 2021년부터 ITS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엔 실시간 신호정보제공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면 '미래교통안전망'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차량운전자들에게 신호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면 원활한 교통흐름은 물론,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미래형 교통체계를 시 전역에 구축해 ITS세계총회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4월 19일 (금)

지역 16면

홍천양수발전소 건설 주민 의견 반영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 수렴 상생 협력 방안 모색
지역업체 참여도 확대... 반대대책위 수위도 높아져

【홍천】홍천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홍천 업체 참여도 확대된다.

홍천군과 한국수력원자력 홍천양수건설소는 지역 장기 발전과 마을공동체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다음 달 20일까지 화촌면 풍천리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주민

의견 반영된 마을발전 계획 수립 △실현 방안을 위한 법령·제도·재원 마련 검토 △지속적·정기적 주민 갈등 해소 노력 및 신뢰 회복 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군과 홍천양수건설소는 지난 16일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협의체 회의'를 열기도 했다. 양수발전소가 지어지면서 이설되는 국도 56호선 도로공사에 홍천 업체의 레

미콘 공급자재 납품 방안을 협의했다. 앞으로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홍천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업체 생산품 활용,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홍천양수발전소 건설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업체 참여도 높여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홍천양수발전소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

근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 반대대책위원회는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 물걸리석산개발반대위 등과 대형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공동 연대회의를 구성했으며 매주 금요일 군청 앞에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주민 동의 없이 강행하는 난개발을 모두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홍천 발전을 위해 홍천군의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9일 (금)

유통/소비자 07면

지갑 닫은 방문객 ... 착한가격 '관광1번지' 사수 시급

불황 속 선방한 강원관광, 활성화 대책 필요

최근 강원지역 벚꽃축제와 전통시장 야시장 등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기 불황에도 '관광1번지'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원관광이 재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고물가 시대 방문객들의 소비 지출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및 현안 해결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해안 관광 인기 여전

강원 동해안 지역이 전국 해안에서 관광객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등 휴가철에도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가명정보 빅데이터 결합을 통한 연안·어촌관광 소비행태 분석'을 보면, 여름 휴가철 성수기(7~8월)와 비수기(나머지 10개월)의 관광객 증가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국 연안·어촌지역의 평균이 2.5%인 것에 반해 강원연안은 65.4%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강원 다음으로 높은 경북(33.1%)과 비교해도 두배 이상 높아 동해안의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율이 타 시도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강원연안의 경우 젊은층 관광객 증가율이 높아 전국적으로 트렌디한 관광지로도 손꼽힌다.

20대 미만 관광객 증가율은 112.7%로 충남(81.7%), 전북(48.3%), 경북(42.9%), 부산(34.8%)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20대는 84.1%, 30대는 81.9%, 40대는 81.9% 증가했다.

또 '전국 상위 1~5위 연안·어촌 지역별 관광객 수와 지출액 차이' 비율을 보면 강원연안은 12.7%로 부산(15%), 제주(13.2%) 다음으로 높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방문객 비중이 높다. 지출액 비율은 11.3%로 전국 4위를 기록했다. 반면 방문객과 지출액 비율은 높지만, 강원연안의 1인당 지출액은 전국 상위 1~5위 내 들지 못해 관광객들의 1인당 소비 증가 제고 방안·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고물가와 바가지요금 등 이유로 관광객들의 소비심리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연안의 휴가철 주요 유입지역은 1위가 경기(50.1%), 2위 서울(14.4%), 3위 충북(6.4%)으로 나타

강원연안 관광객 65.4% 증가

부산·제주 다음 휴가철 인기

소비심리 낮아 1인당 지출 ↓

행사장 '바가지 요금' 재조명

시·군 합동단속반 편성 대응

중량·수량·가격 적정성 평가

우수축제·착한가격 인센티브

"민고 찾는 축제 만들기 노력"

났다. 경기지역 거주자들이 전국의 연안·어촌지역을 방문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강원과 인천에 방문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서울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연안·어촌지역은 여름 휴가철과 비수기 등 시기와 상관 없이 인천, 강원, 경기였으며 인근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연안·어촌지역 489곳에 방문한 55만 9518명의 가명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 도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단속

코로나19 이후 각종 유명 지역축제가 재개되며 인파가 몰리는 등 강원관광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축제장 바가지요금' 이슈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축제장에서 1인당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도 및 시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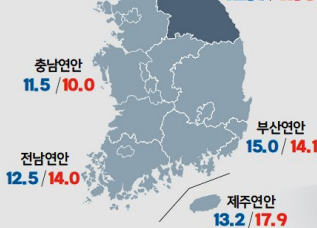
춘천댐 벚꽃길

■ 연안·어촌 지역별 지출액 및 관광객 수 비율(상위 1~5순위)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가명정보 빅데이터 결합을 통한 연안·어촌관광 소비행태 분석 보고서

● 관광객 수 비율(%)

● 지출액 비율(%)



인단속에서 나서기로 했다. 본지 취재 결과 도는 시군 공무원 및 지역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21개 단속반 100여 명을 투입해 축제장 내에서 제시된 내용과 다르게 음식값을 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축제장 내 입점을 제한하고 예치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축제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메뉴 사진과 가격, 중량·수량이 표기된 먹거리 가격표를 시군 및 지역축제 위원회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

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소비자들이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 우수축제'에 국·도·비 및 컨설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우선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바가지요금 문제를 야기시킨 축제에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바가지요금은 찾아온 관광객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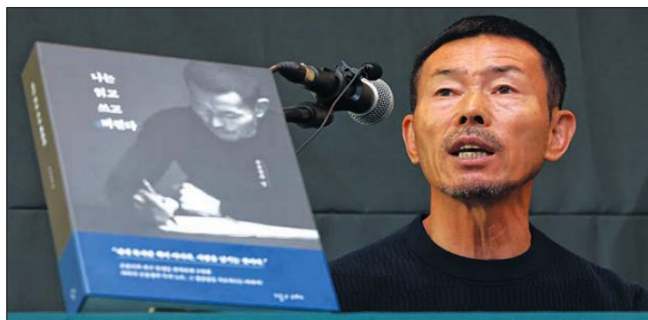
내쫓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어 만든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라며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밟고 찾을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7개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축제 9개, 시군 자체 축제 101개 등 총 117개의 축제가 매년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황선우 woo6745@kado.net

“공 잘찬다고 월클 아냐 인품 반드시 동반해야”

손흥민父 손웅정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출간



연합뉴스

◇축구 스타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본인의 인터뷰집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기자회견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웁니다.” 세계적인 축구스타 손흥민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지난 17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신간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의 출간 기자회견담회에서 “자식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 진짜 부모”라며 자신의 교육관을 밝혔다.

손 감독은 “흔히들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 줘야 한다고들 하는데, 나는 그것을 직무유기라고 본다”며 “아이가 습관적으로 뭘 잘못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친구끼리 그것이 되겠냐. 안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 줄 수 있는 건 부모 뿐”이라고 강조했다.

1년에 책 200~300권 읽어

친구같은 부모는 직무유기

안되는 건 안된다 말해줘야

그는 스스로에 대해 자주 뛰쳐나가는 ‘반항아’였다고 회고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책을 계속 해서 읽었다고 밝혔다.

1년에 200~300권의 책을 읽었다는 손 감독은 “그때도 공부의 기본은 독서라 생각했다.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가려면 독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미래를 여는 열쇠는 책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만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게으름, 부지런함, 청소하는 습관도 대물림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람과 사람 간에 선을 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도 (그런 태도를) 배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책은 그에게 겸손함을 일러줬고, 그것은 고스란히 손흥민의 태도에 스며들었다. “공 하나 잘 찬다고 해서 월클이 되는 건 아니다. 인품을 동반해야 한다”는 그의 평소 신념처럼 말이다.

‘손웅정의 말’이라는 부제가 붙은 신간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는 손 감독이 2010년부터 작성해 온 독서 노트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에 걸쳐 김민정 시인과 진행한 인터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책은 기본과 가정, 리더, 운동, 통찰 등 열세 가지 키워드로 이뤄졌다. 손 감독이 품고 있는,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신선한 관점에서 풀어낸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담아내고 있어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석기기자 sgtoh@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9일 (금)

지역 14면

삼척시청 육상팀 '마라톤 도시' 명성 입증

새만금 국제대회 우승 등 성과
창단 2년 만에 전국 최고 실력
김완기 감독 지도력 큰 역할

삼척시청 육상팀이 창단 2년만에 최근 열린 국제 마라톤대회에서 1등과 2등, 단체상 등 압도적 성적을 거둔 자 지역내 환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삼척시청 육상팀은 지난 14일 열린 '2024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에서 42.195km 풀코스를 이수민 선수가 2시간35분46초로 완주해 우승한 것을 비롯해 정현지 선수가 2시간38분59초로 2위를, 이혜진 선수가 2시간46분34초로 5위를 각각 차지했다. 또 이수민·정현지·이혜진 선



삼척시는 최근 시청에서 박상수 시장과 양희전 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제 마라톤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삼척시청 육상팀 선수단을 환영했다.

수가 총합 8시간1분24초로 여자부 단체 1등을, 김완기 감독이 엘리트 지도자상(여자부)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우승을 차지한 삼척 출신 이수민 선수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우승에 이어 3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데다 지난해 제52회 전국 종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1만m에서 2위에 입상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가 알려지자 삼척시체육회 등은 시청 육상팀의 이번 국제대회 성과를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시내 곳곳에 잇따라 게시하는 등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삼척시도 최근 시청에서 박상수 시장과 양희전 시의회 부의장, 김희창 시의원, 김상하 시체육회장, 이만섭 시 육상연맹 회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육상팀의 선전을 축하하는 환영식을 갖고, 감독과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격려했다.

시청 육상팀이 창단 2년만에 이처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데는 김완기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김완기 감독은 현역 시절 한국 최고 기록을 3차례나 경신하는 등 황영조, 이봉주를 포함해 한국마라톤 계보를 잇는 대표 선수로 활동했다. 이후 지난 2022년 삼척시청 감독으로 부임해 선수들을 지도하고 선수단을 개편하는 등의 노력으로 시청 육상팀을 단숨에 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김 감독은 "훈련 중 이수민 선수 부상이 있어 우려됐지만, 잘 준비해 극복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정민

江原日報

2024년 04월 19일 (금)

스포츠 23면

강원FC, 인천 방패 뚫고 홈 2연승 도전

21일 오후 2시 K리그 1 8R



강원FC가 홈경기 연승에 도전한다.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강원은 21일 오후 2시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하나은행 K리그 1 2024' 8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전을 치른다. 5라운드 춘천 홈경기에서 대구FC를 3대0으로 꺾은 데 이어 춘천 홈경기 2연승에 나선다. 지난 17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코리아컵 3라운드 화성 FC전(3대1 승)까지 포함하면 홈 3연승 도전이다.

두 팀은 현재까지 나란히 2승 3무 2패, 승점 9점을 기록 중이다. 다만

두 팀 '승점 9점' 동률
강원 다득점 앞서 5위
지난 시즌 1무 2패 열세
이상현·야고 활약 기대

강원(11골)이 다득점에서 인천(9골)에 앞서고 있어 강원(5위), 인천(7위)이 양 팀의 통산 전적은 1승 7무 15패로 호각세다. 다만 최근 5경기 기준으로는 강원(1승 2무 2패)로 열세다. 특히, 강원(5위)은 지난 시즌 인천을 상대로 1무 2패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양 팀은 모두 지난 17일 코리아컵 3라운드에서 K3리그 팀과 경기를 치렀다. 하부리그 팀과 경기였던 만

큼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로테이션의 강도는 강원(5위)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강원(5위)은 올 시즌 리그에서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11명을 비롯해 핵심 교체자원까지 모두 명단에서 제외했다. 화성을 상대로 연장 승부를 펼쳤지만 주전이 모두 휴식을 취한 만큼 인천전에서 체력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천은 김도혁, 제르소, 텔브리지, 천성훈 등 주축 선수 일부가 출전했다. 90분 만에 1대0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강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체력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강원(5위)은 올 시즌 리그 최다득점 공동 4위에 올라있고 인천은

최소실점 공동 2위(8실점)에 올라있다. 강원(5위)에서는 직전 울산HD 원정(0대4 패)에서 침묵했던 공격진이 살아날 필요가 있다. 특히, 득점 1위인 이상현(7골)의 활약이 중요하다. 이상현은 울산전에서 페널티킥까지 놓쳤을 정도로 킬러 본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활약은 좋지만 아직 첫 골을 신고하지 못한 야고 카리엘로도 득점을 터트릴 필요가 있다.

강원은 이번 경기 이후 상위권에 올라있는 김천(2위)과 포항(1위)을 잇따라 만난다. 어려운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승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강원(5위)의 공격진이 강원(5위)에 또 한 번의 홈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순찬·류호준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9일 (금)

사설/칼럼 19면

청년 귀농·귀촌 입체적 지원을

-30대 이하 탈 강원 추세... 정책 다변화 필요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강원을 살리기 위해, 청년 귀농·귀촌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농촌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가정을 만들어 거주하면, 공동화를 막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또한 도시 소비층의 농산물 구매 추세와 기호를 파악해 소득증대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은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내 귀농·귀촌 청년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자체는 농어촌 현장에서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다각적인 정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귀농·귀촌자의 탈 강원 조짐은 젊은 층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도내 귀농·귀촌 인구는 총 2만 83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들은 1만 1650명으로 41.15%에 달합니다. 이들의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이탈률도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도내 청년 귀농·귀촌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만 3542명에서 2019년 1만 5776명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2021년부터 급감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3년 새 26.1%인 4126명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같은 기간 40대

이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던 것과 비교하면, 청년들의 탈강원이 가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귀농·귀촌 청년들은,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한 청년들은, 이 정책의 장점에 공감하며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체류형 귀농센터 등을 통한 농촌 생활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농작물 재배는 물론, 판로 확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역 텃세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정착해 농업을 하는 청년들은 지역의 소중한 인적 자산입니다.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로 침체한 농촌 지역을 회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건은 이들이 귀농 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노력만 만큼 풍족한 생활을 보장할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융합해 정서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귀농·귀촌한 청년들의 의지와 목표가 뚜렷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공생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을 바탕으로 한 보다 입체적인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9일 (금)

사설/칼럼 19면

도양성평등기금 결정액 인색해서야

-4년 전 대비 17% 불과, 출산극복 포함도 드문 일

얼마전 발표된 강원도양성평등기금 사업 결정 건수가작년에비해5분의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년 20건이던 사업이 올해는 4건에 불과합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1억2815만원에서 금년 3826만원으로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9년은 23개 사업에 1억8166만원이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큼니다. 당시 25개 사업에 2억1679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기금사업 규모와 건수가 20년도 대비 17%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원과 같이 일시에 대폭 축소한다 시도 사례를 찾기 힘들고 그동안 도행정 추이에서도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양성평등기금 본연의 사업 목적과 거리가 있는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24년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4건 중 양성평등활동 참여와 양성평등 촉진은 전문직한국연맹춘천클럽 1195만원과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 580만원입니다. 이에 비해 건강가정 육성은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무지개인성교육원 지원사업 2건에 2051만원으로 절반이 넘는 금액이 배정됐습니다. 2020년 양성평등기금 25개 사업 중 건강가정은 2건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수를 차지한 것은 여성복지 및 권

익증진사업 11건, 성주류화 및 양성평등 촉진 4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올해 4건 선정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는 저출산, 일·생활 균형 등에 초점이 맞춰져 방향이 많이 바뀌었고, 응모가 줄고 엄격한 심사 결과 탓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전남도는 20개 사업 신청 중 18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사전에 기금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단체교육을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 시도를 통틀어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출산 극복 문제를 끼워 넣은 곳은 강원을 제외하고 찾기 힘듭니다.

경북도는 기획공모에 세대 공감 성평등문화 확산이, 충남도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성평등지수 향상 촉진 사업이 돋보입니다. 서울 시도 지역성평등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 의제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원도의 지역성평등지수는 8개 부문 중 특히 의사 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이 중하위권에 그쳤습니다. 도양성평등기금은 낮은 성평등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쓰여야 합니다. 시대성과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실효를 내기 어렵습니다. 추가 공모에서는 정책 연구를 통해 미흡한 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4월 19일 (금)

사설/칼럼 25면

환자 뒷전인 醫-政 간 대치 국면, 이제는 멈춰야

총선 후 해결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의(醫)-정(政)’ 간 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의대생들은 내년 대입 전형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가처분 소송을 예고하는 등 의료계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가톨릭관동대를 포함한 전국 모든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17일 8차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며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여기에서 전국 32개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법원에 ‘의대 증원을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의-정 간 대치 국면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우선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2,000명 증원을 양보할 수 없다면 대화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없다. 대화하지는 시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양측 다 겉으로는 대화하자고 하지만 ‘2,000명 증원 불변’과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서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니 협상이 되기 어렵다. 의료계는 환자와 국민을 위협하는 사표 제출을 철회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신축적인 입장을 취해 나갈 때 대화는 시작될 수 있다.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되면 근근이 유지돼 오던 응급·중환자 의료체계는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의-정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남아 있는 의사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자신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이 고통을 겪으며 불안해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특히 전공의들이 떠난 이후 교수들과 전임 의들이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도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 의사들이 환자 곁을

전국의대교수협, 증원 재검토 정부에 요청

의료 공백으로 환자 피해 갈수록 커져

환자 볼모로 집단 투쟁, 정당화될 수 없어

떠나 집단 투쟁을 벌이는 것은 노조의 불법 파업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의사면허는 국가 자격증이다. 냉철하게 돌아해보면 의대 정원은 중장기 의료 수요를 감안해 국가가 정하는 것이지 기득권을 가진 의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왔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는 2.5명(한 의사 포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의사들이 국민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라면 국민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다.

江原日報

2024년 04월 19일 (금)

사설/칼럼 25면

영월~삼척고속도로·제2경춘국도, 내년 국비 반영을

도가 '영월~삼척고속도로'와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에 대한 내년 국비 반영을 국토교통예산협의회에서 정부에 촉구했다. '영월~삼척고속도로'는 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 사업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여야가 여러 차례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놓은 사업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을 약속한 지역 현안이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진척이 없다. 이에 중부내륙 지역 6개 시·군으로 구성된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가 2023년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삼척 구간 조기 착공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 6월 중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통이 가능하다.

제2경춘국도 역시 사업 확정 후 5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2019년 예타 면제로 사업 추진이 확정됐지만 사업비 문제로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제2경춘국도의 사업비는 1조2,862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을 맡겠다는 시공사가 없어 연쇄 유찰 사태를 겪었다. 자재값 및 인건비 증가 등 인플레이션과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에 적자시공이 불가피하자 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총사업비 5,000억원의 증액과

내년도 공사비 500억원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당초 하루 교통량 4만5,000대로 설계됐지만 주말이면 2배가 넘는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몰리면서 거대한 주차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제2경춘국도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실제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

교통 인프라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이며 지역의 발전 척도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다. 도가 고속도로에 목을 매는 것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오랜 시간 줄기차게 지역에서 고속도로 개통을 촉구하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내년에는 강원지역 현안인 '영월~삼척고속도로'와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막대한 규모의 국비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나 내년에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언제 정부의 예산 지원 사업에 포함될지 장담하기 힘들다. 이들 사업은 균형발전·경제성·정책성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자체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더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